

## 오피니언

## 데스크시각

박진현



영화의 도시 부산은 요즘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오는 2014년 착공하는 오페라 하우스의 규모와 운영방안을 놓고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여념이 없다. 부산 북항 재개발 지구 내에 들어설 오페라 하우스는 부산시가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에 벼금가는 랜드마크로 키우기 위해 추진해온 애심작이다. 오는 2018년 완공되는 이 프로젝트에는 국제현상 설계공모 등 부려 3000억 원이 들어간다.

## 오페라 하우스에 끝 빠진 부산

부산시가 오페라 하우스를 추켜 든 이유는 도시브랜드에 걸맞는 공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부산영화제 덕분에 문화도시로 불리고 있지만 클래식, 오페라 인구의 저변은 취약한 편이다. 게다가 지난 1993년 개관한 대표공연장인 부산문화회관이 갈수록 대형화·고급화되는 오페라, 뮤지컬 등의 무대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것도 한 원인이다.

지난달 시민공청회를 거쳐 잠정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오페라 하우스는 1800석 규모의 전용극장과 다목적 흘, 전시장, 예술공원 등 관광형 입지의 특성을 살린 아

트센터(복합문화공간)로 지어진다.

부산시의 장밋빛 꿈이 현실화된 데에는 연고기업인 롯데그룹의 후원이 있었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는 수년 전부터 롯데그룹을 타깃으로 유치활동을 벌여 1000억 원의 기부약정을 이끌어 냈다. 당초 수십억 원의 오페라 전용극장을 건립

## ‘문화광주’의 불편한 진실

하려던 계획은 롯데의 ‘통큰 기부’ 덕분에 오페라 파크로 ‘판’이 커졌다.

전용공연장은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등 장르의 성격에 맞는 음향시설과 조명 등을 갖춘, 일종의 맞춤형 무대. 음향의 섬세한 전향과 진동까지 컬리티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다. 많은 자자체가 전용공연장과 다양한 부대시설 등을 갖춘 아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 이유다.

서울 예술의 전당과 여수시도 최근 전용공연장을 잇달아 오픈해 공연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1600석 규모의 오페라 전용홀을 거느린 예술의 전당은 실내

악 애호가들을 위해 숙원사업인 600석 규모의 체임버홀을 지난해 9월 개관했다. 당시 김장실 예술의 전당 사장은 기업들을 상대로 문이 많도록 찾았던 끝에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건립예산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수시 역시 지난달 여수 망마산 기슭에 건립한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마루’를 품에 안았다. 여수산단에 입주한 GS칼텍스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총 1000억 원을 들여 클래식 전용홀을 갖춘 아트센터를 여수시에 기부재단한 것이다. 여수시는 최첨단 시설의 예술마루를 겨냥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들 도시들의 페기는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수준의 아트센터는 고사하고 개별 장르에 맞는 전용공연장 하나 없기 때문이다. 제형에 맞춰 움을 찾듯 장르에 맞는 전용홀을 고르는 요즘의 공연트렌드는 ‘먼 나라 이야기’이다.

게다가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이 10개 가 넘는 대구, 대전과 달리 광주에는 20년 전 문을 연 광주문화회관이 유일하다. 국악이건, 오페라건, 뮤지컬이건 광주문화회관의 무대는 장르의 ‘차이’를 배려하지 않는다. 또한,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대내적인 리모델링은 기약하기 힘들

다. 지역의 유일한 대형 공연장이다 보니 공사기간 동안 ‘빅 콘서트’들이 올 스呼ばれ 엄두를 낼 수 없는 것이다.

## 아트센터 커녕 전용홀도 없어

상황이 이런 데도 광주시는 공연 인프라에 관심이 없다. 오는 2014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예술극장이 문을 열면 이런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자위한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미안하지만 예술극장 역시 지역 예술의 바탕과 달리 다목적 공연장으로 건립되기 때문이다.

물론 아트센터나 전용공연장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예산타령 하며 시대의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다.

현실적인 방법은 부산과 여수 등 다른 도시들의 사례처럼 기업의 메세나를 적극 끌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아그룹 등 연고기업이나 최근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해 후원기업을 유치하는 ‘묘인’을 찾아보라는 얘기다.

오늘날 아트센터는 도시의 품격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다. 똑같은 티켓값을 지불하고 대구와 광주의 객석에서 느끼는 공연의 감동이 다르다면 이는 엄연한 ‘문화차별’이다. 아시아의 문화수도를 자처하는 광주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편집부국장 겸 문화선임 기자〉 jhpark@ kwangju.co.kr

## 시설

## 잇따른 ‘인터넷 범행 공모’ 경찰은 뭘 하나

최근 인터넷을 통해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에옮기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평범한 사람들이 생활고를 이유로 순간적인 범죄의 유혹을 뿐이지 못해 흥아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 범행 공모가 유형별처럼 번지는 것은 범죄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면 인터넷상의 익명성이 담보되는 데다 고민을 토로하고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포털 사이트 블로그와 카페에서는 공개적으로 공범을 모집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인터넷 범행 공모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신고를 당부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인터넷 검색 시스템을 강화해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그 많은 블로그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다고 하나 포털들과 공조를 통해 범죄성 블로거에 대해선 퇴출 등 활동근거 자체를 봉쇄해야 한다. 흥아법의 ‘온상’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 일자리사업 예산 공무원 가족 배 채우다니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전남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무자격자가 참여해 인건비를 부당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선 시·군이 공무원 가족은 배제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이들에게 혜택을 줘 취약계층 예산이 애면 대로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기관운영 감사 결과 지난 2010년, 2012년 전남지역 일선 시·군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자격이 없는 공무원 가족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업 참가자격은 18세 이상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도 배제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 공무원의 부친은 무려 855만 원을 탔는가하면 다른 공무원의 장인과 장모는 각각 200만 원, 500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이밖에 공무원 아들이 380만 원을 받는 등 부당 수령자가 수두룩하다.

국민민복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저지를 일이고 보면 비록 많은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엄히 다스려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또 일자리사업 수혜가 실수요자인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도록 대상자 선정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전설에 따르면, 오늘날 전세계에서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네 잎 클로버는 이브가 낙원에서 세상으로 가져왔다고 한다. 네 잎 클로버는 이미 기원전부터 아일랜드와 웨일즈 사이에서 신성한 식물로 송배되어 왔던 식물이기도 하다.

이들 지역에서는 ‘네 잎 클로버를 발견한 사람은 소중히 보관할 것이다’고 하면 생활 행복하고 부를 누릴 것이다.’

네잎 클로버는 이브가 전해내려온 이야기로 여겨지는 것은 현대 문명사회에서 인간의 불안과 소외감을 해소시켜 인간에게 어머니 품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제공한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훼손된 자연을 되살려 자연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어 자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당연히 처리됐어야 할 사건들이 권리의 눈치를 살피면서 고무줄 장대가 되어 버린 현실은 ‘법이 만인’

대한 배려다. 강이 아무리 아름답고 평온함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접근하기 어렵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4대강 사업이 단순히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만 만들었다면 4대강 사업은 결코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자연을 살리고 자연에 귀의한다는 것은

현대 문명사회에서 인간의 불안과 소외감을 해소시켜 인간에게 어머니 품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제공한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훼손된 자연을 되살려 자연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어 자연의 안정성을 찾게 하는 일이다.

자연이 인간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에 처

한다면, 자연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자연을 위해 아니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해 자연을 사랑하고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K-water 전남지역본부 관리처장〉

는길 들은 적 있는데 종·고교에 이런 게 설

치되지 않는 곳이 많다.

학교는 물론 지역교육청 내에도 방학기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중에 주유소나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결

실하다.

전국의 지역 교육청은 물론이려니와 모든

종·고교에서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담당할

부서를 만들고 학교 교사와 해당 교육청 직원이 정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학생들이

애써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권

과 노동의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일이 없게

해줬으면 한다.

▲ 성열봉·목포시 온금동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데스크시각

박진현



영화의 도시 부산은 요즘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오는 2014년 착공하는 오페라 하우스의 규모와 운영방안을 놓고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여념이 없다.

부산 북항 재개발 지구 내에 들어설 오페라 하우스는 부산시가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에 벼금가는 랜드마크로 키우기 위해 추진해온 애심작이다. 오는 2018년 완공되는 이 프로젝트에는 국제현상 설계공모 등 부려 3000억 원이 들어간다.

## 오페라 하우스에 끝 빠진 부산

부산시가 오페라 하우스를 추켜 든 이유는 도시브랜드에 걸맞는 공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부산영화제 덕분에 문화도시로 불리고 있지만 클래식, 오페라 인구의 저변은 취약한 편이다. 게다가 지난 1993년 개관한 대표공연장인 부산문화회관이 갈수록 대형화·고급화되는 오페라, 뮤지컬 등의 무대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것도 한 원인이다.

지난달 시민공청회를 거쳐 잠정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오페라 하우스는 1800석 규모의 전용극장과 다목적 흘, 전시장, 예술공원 등 관광형 입지의 특성을 살린 아

트센터(복합문화공간)로 지어진다.

부산시의 장밋빛 꿈이 현실화된 데에는 연고기업인 롯데그룹의 후원이 있었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는 수년 전부터 롯데그룹을 타깃으로 유치활동을 벌여 1000억 원의 기부약정을 이끌어 냈다. 당초 수십억 원의 오페라 전용극장을 건립

## ‘문화광주’의 불편한 진실

하려던 계획은 롯데의 ‘통큰 기부’ 덕분에 오페라 파크로 ‘판’이 커졌다.

전용공연장은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등 장르의 성격에 맞는 음향시설과 조명 등을 갖춘, 일종의 맞춤형 무대. 음향의 섬세한 전향과 진동까지 컬리티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다. 많은 자자체가 전용공연장과 다양한 부대시설 등을 갖춘 아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 이유다.

서울 예술의 전당과 여수시도 최근 전용공연장을 잇달아 오픈해 공연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1600석 규모의 오페라 전용홀을 거느린 예술의 전당은 실내

악 애호가들을 위해 숙원사업인 600석 규모의 체임버홀을 지난해 9월 개관했다. 당시 김장실 예술의 전당 사장은 기업들을 상대로 문이 많도록 찾았던 끝에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건립예산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수시 역시 지난달 여수 망마산 기슭에 건립한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마루’를 품에 안았다. 여수산단에 입주한 GS칼텍스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총 1000억 원을 들여 클래식 전용홀을 갖춘 아트센터를 여수시에 기부재단한 것이다. 여수시는 미안하지만 예술극장 역시 지역 예술의 바탕과 달리 다목적 공연장으로 건립되기 때문이다.

물론 아트센터나 전용공연장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예산타령 하며 시대의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다.

현실적인 방법은 부산과 여수 등 다른 도시들의 사례처럼 기업의 메세나를 적극 끌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아그룹 등 연고기업이나 최근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해 후원기업을 유치하는 ‘묘인’을 찾아보라는 얘기다.

오늘날 아트센터는 도시의 품격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다. 똑같은 티켓값을 지불하고 대구와 광주의 객석에서 느끼는 공연의 감동이 다르다면 이는 엄연한 ‘문화차별’이다. 아시아의 문화수도를 자처하는 광주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편집부국장 겸 문화선임 기자〉 jhpark@ kwangju.co.kr

## 기고

## 강과 함께 자연을 느끼다

박인근

일반적으로 인간의 역사는 선택의 과정이라고 한다. 인간은 인간에게 평화와 안락함을 제공하는 자연을 버리고 자연으로부터 탈출을 감행했으나, 자유를 얻는 대신 그 대가로 정서적인 불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돼 다시 자연을 동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들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은 자연과 함께하고 자연으로 다가갔을 때 비로소 일자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인간과 공존해야 할 강에 생명을 불어 넣으므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게 하려는 사업이다.

특히 최근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